

여성낙농인 홍보요원화 교육 성료

제주도를 끝으로 전국 10개 지역 순회교육 마쳐



우유 홍보요원으로서 자질을 함양시키는 ‘여성낙농인 홍보요원화 교육’이 지난 7월 15일 제주도를 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전국 10개 권역을 순회하며 진행된 이번 교육은 지난 6월 17일 경남 창원을 시작으로, 충북도(청원), 경북도(상주), 경기남(여주), 전남도(나주), 전북도(김제), 충남도(당진), 경기북(강화), 강원(원주), 제주도 등 총 10개지역에서 약 300여명의 여성낙농인이 참여해 회원들의 관심을 확인하였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여성낙농인 홍보요원화 교육은 우유의 영양학적 가치와 그 활용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요리전문가를 초빙하여 이론과 실습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와 교육생 간 대화의 시간을 통해 흥미롭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했다.

이번 우유요리 실습을 통해 여성낙농인들은 우유소비홍보와 관련된 행사에서 홍보요원으로서 다양한 우유요리를 소개하는 등 우유에 대한 홍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라남도

(2014년 6월 24일,
전남농업기술원)



전라북도

(2014년 6월 25일,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



충청남도

(2014년 6월 26일,
당진시농업기술센터)



경기북부

(2014년 6월 27일,
강화군농업기술센터)



강원

(2014년 7월 8일,
원주시농업기술센터)



제주도

(2014년 7월 15일,
제주도축산업협동조합)

